

연구논문

## 공공기관 통번역 팀 운영에 관한 통시적 고찰: TV 보도국을 중심으로\*

정 나 영\*\*

- I. 서론
- II. 이론적 배경
- III. 연구 설계
- IV. 분석 결과
- V. 나가는 말

### 〈 요약 〉

최근 제 4차 산업 혁명으로 인한 인공지능 통번역 등 다수의 요소에 의해 프리랜서 통번역사 시장 여건이 열악해지면서 공공기관에 소속된 통번역사로 일하고자 하는 통번역 대학원 졸업생들이 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중 TV 보도국에 초점을 맞추어 통번역사 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 형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 같은 변화에 통번역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회 현상과 그 변화에 대한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시해줄 수 있는 분석 모델인 ANT 이론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TV 보도국 통번역사 팀은 조직개편 이전에는 언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외신 번역이 주요 업무였던 반면 조직개편 이후에는 언어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고 뉴스 기사를 작성하는 일이 주요 업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통번역사들은 동맹을 맺는 외신을 확대하고 자신에게 등록되어 있는 데일리 서포트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보도국 내 자신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제어: 공공기관 통번역사, 인하우스 통번역사, ANT 이론, 외신, 데일리 서포트 ]

\* 이 논문은 2018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영어학부 조교수(skdued84@bufs.ac.kr)

## I. 서론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와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의 상당 수가 공공기관 혹은 민간 기업에 소속된 소위 ‘인하우스(in-house) 통번역사’<sup>1)</sup>로 활동 중이다.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에서는 가격 부담이 높은 프리랜서 통번역사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안정적 수급이 가능한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고, 통번역사의 입장에서는 통번역사의 가격 경쟁력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는 만큼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이 보장되는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일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김종희, 2015; 유한내, 2016; 이지은 외, 2014). 실제로 이화여자대학교 통번역대학원 통역학과 졸업생의 49%, 그리고 번역학과 졸업생의 37%가 인하우스 통번역사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이지은 외, 2014). 최근 이화여자대학교나 한국외국어대학교 외에도 석사 혹은 학부 과정에서 통번역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가 늘어나면서<sup>2)</sup> 전문가 혹은 비전문가 통번역사의 인하우스 시장은 앞으로도 쉽게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통번역 인하우스 시장 전망을 반영하듯 최근 인하우스 통번역사에 관한 연구가 최근 조금씩 진행되고 있다. 김종희(2013, 2015)와 김현정(2015)은 각각 민간 기업과 정부 기관에 소속된 인하우스 통번역사를 대상으로 취업 과정과 직무 내용 등을 조사하였으며, 유한내(2016)는 통번역사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직무 내용과 능력 등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sup>3)</sup>. 박지영(2016)은 인하우스 통번역사 중 통번역 비전공자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입사 경로와 직무 등을 조사했으며, 이지은 외(2014)는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정 개편을 위해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내용과 비율 등을 조사하였다. 종합해 보면 인하우스 통번역사에 대한 연구는 소속 기관의 유형과 전문 통번역사 여부를 두 축으로 해서 진행된 연구(김종희, 2013, 2015; 박지영, 2016)와 국내 양대 통번역대학원 졸업생들의 취업 상황 혹은 구직 경로에 초점

1) “특정 조직에 고용되어 조직의 특정업무 관련 통역을 전문으로 하는 통역사를 인하우스 통역사라고 부른다” (곽중철 2009: 2).

2) 국내에는 2009년을 기준으로 12 곳의 통번역대학원과 14 곳의 통번역 관련 학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김종희, 2015: 111).

3) 유한내(2016)은 ‘인하우스 통번역사’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는 사용하지는 않고 있지만 채용 공고 분석을 통해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출신의 통번역사의 직무 내용과 능력 등을 파악하였으며 이 중 상근 통번역사에 대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을 맞춘 연구(유한내, 2016, 이지은 외, 2014)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공공 기관, 특히 TV 언론사 보도국에 초점을 맞추어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내용, 조직 내 역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현장관찰조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국내외 뉴스 번역 연구의 양적 증가가 시사하듯 언론사에서의 통번역 인력 기용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하나의 흐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Bielsa, 2007; Chen, 2011; Doorslaer, 2009; Hursti, 2001; Orengo, 2009; Tsai, 2005; 강경이, 2013; 송연석, 2013; 이지연, 2007, 2008; 정나영, 2013, 2017; 홍정민, 2014 등), 이들이 뉴스 번역 주체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 이외에 공공기관인 TV 언론사 보도국의 인하우스 통번역사로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아직 공백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연구는 대부분 현재의 인하우스 통번역 시장의 실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현재 배출되고 있는 통번역대학원 졸업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구직 경로와 직무에 관한 분석이 주류를 이룬다. 반면 통번역대학원 졸업생이 통번역 시장의 수요에 맞게 적절하게 배출되던(유한내, 2016) 과거 2000년대 이전, 즉 전문가 집단으로서의 통번역사의 이미지가 강하던 시절에 이미 공공기관 혹은 기업에 입사한 통번역사들이 현재 통번역사의 위기가 거론되는 현 시점에서(*ibid.*) 기관 내에서 어떻게 입지를 굳히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관한 분석은 연구 공백 상태로 남아있다. 특히 공공기관 중에서도 TV 보도국 통번역 팀은 뉴스 제작 환경의 다변화에 따른 공공 기관의 조직 개편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직무가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이 조직 개편에 어떻게 대응함으로써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는지에 관한 논의는 제 4차 산업 혁명을 비롯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통번역 위기설이 제기되는 현 시점에서(신지선·김은미, 2017) 시의적절한 논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본 연구가 현장관찰연구를 실시한 TV 보도국은 실제 2016년 보도국 국제부에 소속된 통번역 팀을 대상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통번역 팀은 다양한 역할 담당을 모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이하 ANT)’을 분석 모델로 적용하고자 한다. ANT 이론은 프랑스의 과학자이자 철학자인 라투르(Bruno Latour)에 의해 시작된 이론으로, 사회 속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성을 토대로 정치적, 사회적, 과학적, 문화적 현안이나 현상, 그리고 그 변화 과정을 구체적

으로 설명하는 데에 유용한 분석 모델이다(Abdallah, 2005; 김나형·김숙진, 2013; 김동일, 2010; 김병선, 2012; 김진택, 2012; 안형준, 2009 등).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TV 언론사 보도국의 통번역 팀은 복수의 행위자의 관계망에 따라 직무 내용이나 권력 관계 등이 변화할 수 있는 하나의 사회적 현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ANT 이론은 통번역 팀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데에 유용한 증거 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사회적 현상이 변화하는 과정을 하나의 '번역(translation)' 과정으로 보고 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ANT 이론은(최수연, 2016) TV 보도국 통번역 팀의 통시적 변화를 구체적으로 분석하는 데에도 유의미한 통찰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같은 배경 하에 본 연구는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 질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TV 보도국 내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행위자는 누구이며 해당 네트워크에는 어떠한 직무가 있는가?
2. TV 보도국 내 통번역사 네트워크는 변화하는가? 변화한다면 그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3. TV 보도국 내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변화에 통번역사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가?

## II. 이론적 배경

### 1. 행위자-네트워크 이론(Actor-Network Theory)

본 장에서는 먼저 ANT 이론을 전반적으로 개괄하고 주요 개념을 살펴봄으로써 통번역 팀 네트워크의 직무 현황과 네트워크 형태를 고찰할 수 있는 틀을 도출한다. 또한 공공기관 통번역 팀 운영의 통시적 변화를 네트워크의 폐쇄와 형성과정을 설명하는 ANT 이론의 '번역' 개념을 통해 구체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ANT 이론은 1980년대의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이하 STS)에서 출발한 것으로, 대표적인 ANT 학자인 라투르(Bruno Latour)는 기본적으로 과학과 기술은 별개의 개념이 될 수 없다고 본다. ANT 학자들은 과학적 진실은 과학적 방법론으로 도출된 객관적 실체가 아니라 연구실의 환경을 구성하는 다양한 기술들, 가령 현

미경이나 컴퓨터, 그리고 바이러스나 연구자의 실험 등과 같은 이질적 요소들이 상호 간 최적화된 네트워크를 형성한 것으로 간주한다(김진택, 2012; 홍성욱, 2010). 따라서 ANT에서의 과학적 진실은 이질적 요소들로 구성된 연구실이라는 사회적 네트워크에서 도출된 하나의 결과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ANT의 네트워크 속에서 네트워크의 형성과 변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행동의 원천으로 행위 능력을 가진 존재가 행위자(actor)다(Latour 1997). ANT에서는 행위자의 개념에 인간 행위자는 물론 앞서 언급한 기술, 즉 비인간 행위자도 포함된다고 본다(*ibid.*). 인간과 기술을 이분법적으로 인식하여 사회를 설명하고자 했던 기존의 이론과 ANT 이론의 다른 점은 바로 여기에 있다(김진택, 2012; 안형준, 2009; 홍성욱, 2010). ANT 이론에서는 인간과 비인간 행위자가 끊임없는 동맹과 교란의 과정을 거쳐 일정한 질서를 갖춘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또 붕괴되는 과정이 반복되는 것으로 본다(*ibid.*). 따라서 연구실이라는 사회를 바라보기 위해 시작된 ANT 이론은 이후 과학뿐 아니라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들을 분석하는 데에 유용하게 적용되어 왔다(Abdallah, 2005; 김나형·김숙진, 2013; 김동일, 2010; 김병선, 2012; 김진택, 2012; 안형준, 2009; 최수연, 2016 등). 특히 본 연구가 TV 보도국 내 통번역사 활용 현황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논하는 만큼 ANT는 보도국 내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어떠한 인적, 기술적, 조직적 요인 등에 의한 교란되고 새로운 네트워크를 다시 형성하는지를 분석하는 데에 적합한 이론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 이론에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은 번역(translation)이다. 번역이란 행위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번역이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한 언어가 가진 질서 체계를 다른 언어의 네트워크에 성공적으로 포함시키는 과정이다(홍성욱, 2010, 최수연, 2016). ANT 이론에서 행위자들은 특정 동기에 의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빠져 나와 다른 네트워크의 행위자들과 동맹 관계를 형성하며, 더 많은 행위자와 더 단단한 동맹을 맺어 네트워크의 내에서의 권력을 높이려 한다(김진택, 2012; 안형준, 2009; 홍성욱, 2010). 가령 통번역사 네트워크 내에서 한영 통번역사 행위자가 다양한 외신 행위자와 강화된 동맹 관계를 맺으면 보도국 내 영미권 뉴스 보도는 강화될 것이고, 한중 통번역사 행위자가 데스크 행위자와 더 강력한 동맹 관계를 형성할 경우 보도국 내 중국어 뉴스 보도가 강화될 것이다.

이 같은 네트워크 내 권력 관계를 논할 때 배제할 수 없는 개념이 바로 ‘의무통과

점(obligatory passage point, 이하 OPP)(홍성욱, 2010: 26)'이다. ANT에서의 네트워크는 항상 안정화를 피하며 다른 네트워크 행위자에 의한 교란을 차단하고자 하지만 네트워크는 언제나 가변적이며 역동적으로 움직인다(김진택, 2012; 홍성욱, 2010). 행위자가 네트워크를 건설할 때 다른 행위자가 자신의 지점을 의무적으로 거쳐 자신의 네트워크 속으로 편입되게 만들고자 하는데 이 같은 지점이 의무통과점(OPP)다(*ibid.*). OPP에 있는 행위자는 다른 행위자들이 기존의 네트워크에서 새로운 네트워크로 편입될 때 자신의 역할을 '치환(transposition)(김진택, 2012: 17)'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따라서 OPP는 네트워크 내 권력파도 연결되는 개념이다. 행위자는 네트워크 내 OPP 위치를 선점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자신을 거쳐가는 행위자의 수를 증가시키고자 한다. 따라서 TV 보도국 내 통번역사 조직이 지속되려면 이 조직이 보도국 다양한 업무 네트워크에서의 OPP가 되거나, 기존의 OPP와 강한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김진택, 2012; 홍성욱, 2010).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네트워크는 안정화를 피하는데 이는 OPP를 통과한 행위자들이 네트워크 내에서의 자신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치환하여 외부 행위자의 교란에 의한 이탈 동기가 크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네트워크가 안정되면 네트워크 자체가 하나의 대상 혹은 개체가 되는 '결절(punctualization)(홍성욱, 2012: 23)' 현상이 발생하는데, ANT에서는 이처럼 결절된 네트워크를 '블랙박스(blackbox)(*ibid.*)'라고 부른다(김진택, 2012, 홍성욱, 2010, 최수연, 2016).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조직이 와해되지 않으려면 외부 네트워크에 교란되지 않는 블랙박스가 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반대로 마치 외부에서 보기에 이상적 질서를 갖춘 네트워크, 즉 블랙박스를 해체시키기 위해서는 이 네트워크가 OPP를 중심으로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한 역할 부여가 이루어져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교란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 2. 번역의 과정

ANT를 연구한 미셸 칼롱(Michel Callon)은 그의 논문 「번역의 사회학의 몇 가지 요소들 - 가리비와 생브리의 만(灣)의 어부들 길들이기」<sup>4)</sup>에서 네트워크 번역은 '문제제

4) Michel Callon, Some Elements of a Sociology of Translation: Domestication of the Scallops and the Fisherman of St Brieuc Bay in Power, Action, and Belief: A new Sociology of Knowledge, J. Law ed. Routledge & Kegan Paul, London, 1986, p. 196-233.

기(problematization)'와 '관심끌기(interessement)', 그리고 '등록하기(enrollment)'와 '동원하기(mobilization)'의 과정을 순차적으로 거친다고 설명한다(Callon, 1986, 홍성욱, 2010 재인용).

번역은 간단히 말해 네트워크 내로 많은 행위자를 포섭하여 이들이 강력한 동맹 속에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일이다(김진택, 2012; 최수연, 2016; 홍성욱, 2010). 이를 위해 먼저 기존 네트워크의 문제점을 수면 위로 떠올려 행위자들이 협상을 시작하도록 유도하는 문제제기 과정이 필요하다. 효과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면 행위자들은 협상을 통해 새로운 네트워크에서의 역할 치환이 가져다 줄 득실을 따져 보게 되는데 이는 관심끌기 단계로 볼 수 있다. 이후 행위자들이 새로운 네트워크 번역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등록하기 단계가 시작하는데, 이때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역할이 부여되고 네트워크 속에서 이들이 어떠한 위치를 점하고 다른 행위자들과 어떠한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가 정해진다. 마지막으로 동원하기 단계에서는 네트워크에서 역할을 부여받은 행위자들이 소수의 입장을 대변하며 동맹군을 동원함으로써 해당 네트워크가 작동하도록 만드는 단계이다(*ibid.*).

가령 처음 스마트폰이 등장했을 때 휴대전화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인간 행위자와의 견고한 동맹 관계로 구축된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기 위해 휴대 전화의 한계와 스마트폰의 역할을 강조하는 광고가 배포되었고, 스마트폰이 지배하는 세상에 관한 다수의 뉴스가 보도되는 등 스마트폰에 관한 사회적 담화 형성을 통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다. 이후 관심끌기 단계에서는 인간 행위자들은 기존의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스마트폰으로 돌아왔을 때의 득실을 따져보게 되었는데, 이 때 스마트폰 사업자는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시하고, 기기값 보상 등의 공격적 마케팅을 펼치며 인간 행위자가 휴대전화 행위자와의 동맹을 끊고 스마트폰 행위자와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이후 등록하기 단계에서는 스마트폰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는 기존의 휴대전화 네트워크에서 등록되어 있던 역할 이외의 다양한 기능을 새로운 네트워크 내에서 등록함으로써, 또 인간 행위자는 스마트폰의 고유 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둘 간의 동맹을 강화했다. 이후 스마트폰이라는 비인간 행위자는 앱 제작자, 광고주, 카카오톡 등의 동맹군을 동원함으로써 인간 행위자가 휴대전화라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동맹을 복원할 수 없도록 하며 스마트폰을 OPP로 하는 네트워크를 계속적으로 강화, 진화시켜왔다.

살펴본 바와 같이 ANT 이론은 STS에서 시작되었지만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

화적인 현안들을 분석하는 준거 틀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다음 장에서는 ANT 이론에 의거해 TV 보도국 내 통번역 팀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조직 개편에 대응하며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 Ⅲ.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앞서 제시한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공공기관인 TV 보도국 국제부를 대상으로 연구자가 실제 통번역사로 일하며 현장관찰조사를 실시하였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연구 질문과 관련된 일화가 발견될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일화 기록법(anecdotal record, Boydbatstone 2004:230)’을 활용하였으며 기록된 일화와 관련해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일부 면접도 함께 진행하였다.

연구 대상은 복수의 통번역사로 구성된 TV 보도국 통번역 네트워크 행위자로 설정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ANT의 이론에 의거해 통번역 네트워크의 인간 행위자와 비인간 행위자를 현장관찰조사를 통해 파악하고 이들에게 등록된 직무가 무엇인지를 관찰조사와 면접을 병행해 도출하였다. 두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해서는 2016년 통번역 팀 조직 개편의 전후에 네트워크의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그 전후의 행위자간 동맹 관계의 변화와 직무 변화 양상을 일화기록법을 토대로 한 현장관찰조사를 실시하여 도출하였다.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ANT 이론의 ‘번역’ 과정에 의거해 2016년 조직 개편을 ‘문제제기’의 시작으로 보고 문제제기와 관심끌기, 그리고 등록하기와 동원하기의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TV 보도국의 자원과 조직 특성에 맞게 분석하고자 하였다. 특히 조직 개편의 문제 제기가 보도국의 어떠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함으로써 이루어지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현장관찰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는 향후 언론사 보도국 내 통번역사 기용 방법에 관한 시사점을 제시해 줄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연구 질문을 위한 관찰조사는 조직개편이 적극적으로 단행되었던 2016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진행되었으며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감정적, 주관적 면접 결과가 도출될 것을 우려, 세 번째 연구 질문에 대한 면접 조사는 제외하였음을 밝혀둔다.

## IV. 분석 결과

### 1. TV 보도국 통번역사 활용 현황(2016년 이전)

#### 1)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행위자

본 장에서는 먼저 통번역 팀 조직 개편이 단행된 것으로 파악된 2016년을 기점으로 통번역 네트워크의 전후의 상황을 현장관찰조사결과를 통해 면밀히 논의하도록 한다. 그 첫 번째 단계로 조직 개편 전인 2016년 이전의 TV 보도국 통번역 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인간 행위자와 이들의 직무 내용을 살펴본다. 현장관찰조사를 진행한 TV 보도국에는 총 10명의 통번역사가 일하고 있으며, 팀장급 기자가 통번역사의 책임자이자 통번역 기반 뉴스의 데스크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영 통번역사 3명, 한중 통번역사 2명, 한일 통번역사 2명, 한불 통번역사 2명, 한독 통번역사 1명이다. 즉, 통번역사 행위자 10명, 데스크 행위자 1명이다. 즉 TV 보도국 통번역 팀 네트워크의 인간 행위자는 총 5개 언어권 통번역사 10명과 이들의 총 책임자로 OPP 지점에 위치한 데스크 1명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번역 팀 네트워크의 비인간 행위자는 각 통번역사들이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외신 6개, 좀 더 구체적으로는 미국 CNN과 ABC, 일본 NHK, 중국 CCTV, 프랑스 F2, 독일 ZDF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중 미국 ABC와 프랑스 F2, 그리고 독일 ZDF의 경우 현장관찰조사가 진행된 한국의 TV 보도국이 연간 6천 만 원에서 8천 만 원 사이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유상으로 저작권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정리하면 통번역 팀 네트워크의 주요 비인간 행위자는 총 5개국의 6개의 외신이었으며 이 중 일부는 유상 계약인 만큼 계약 해지 시 언제든지 네트워크에서 없어질 수 있는 비인간 행위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현장관찰조사 결과 보도국 통번역팀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직무는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통번역사 행위자들에게는 언어별로 보도국이 계약을 맺고 있는 해외 방송사 뉴스를 번역을 기반으로 직접 보도하는 업무가 주어진다. 보도국에서는 비인간 외신 행위자와 통번역사 행위자와의 동맹을 통해 리포트를 생산하고 이 뉴스를 주말을 제외하고 매일 방송되는 월드뉴스 코너에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도국 통번역사에게 매일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주요 업무는

외신 번역 보도 업무라고 볼 수 있겠다.

둘째, 통번역사들은 기자들의 뉴스 보도에 필요한 언어 전문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결과는 현장관찰조사 외에도 면접 조사(복수 응답 가능)를 병행하여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언어 전문가로서의 구체적인 역할은 기자들의 국제 뉴스 보도에 필요한 외국어 녹취 발췌 및 번역, 기자들의 해외 취재 영상 번역, 기자들의 해외 취재에 필요한 제반 서류 번역, 기자들의 해외 취재 비자 면접 통역, 취재에 필요한 외국어 통화 대리, 긴급 속보 동시통역, 그리고 정상 회담 동시통역 등으로 요약할 수 있겠다. 통번역사 행위자들은 이 같은 업무를 통칭 '데일리 서포트(daily support)'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동일 언어 통번역사 행위자 네트워크

현장관찰조사를 통해 파악한 보도국 통번역 팀 네트워크의 대략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언어권별 통번역사 행위자들은 번역 기반 국제 뉴스 보도 업무와 데일리 서포트 업무를 배정하는 데스크라는 OPP 행위자를 공유하지만 서로 다른 언어 간 접속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일 언어 내 통번역사 행위자와 외신 행위자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다시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단일 언어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특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단일 언어에 한정해서 볼 때 통번역사 행위자와 외신이라는 비인간 행위자와의 동맹 관계는 매우 견고해 보도국 차원에서 보면 이들 행위자가 마치 하나의 대상 혹은 개체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일 통번역사 행위자와 NHK 행위자는 마치 별개의 행위자가 아닌 하나의 대상처럼 보인다. 실제로 보도국 내에서는 통번역사라는 직함과 더불어 이들에게 '특정 외신(예: ABC, NHK) 담당자'라는 호칭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통번역사 행위자들은 담당 외신 행위자와의 동맹 관계가 약화될 경우 네트워크에서 불가피하게 퇴출될 위험, 즉 고용 불안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외신이라는 비인간 행위자의 측면에서 볼 때에도 외신이 높은 품질의 국제 뉴스라는 결과물로 만들어지려면 인간 행위자와의 강력한 동맹이 필요하다. 따라서 외신 행위자는 자신을 전담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통번역사와의 강력한 동맹 관계 구축을 통해 품질 높은 국제 뉴스라는 결과물을 생산하며, 보도국 내에서의 계약 유지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두 번째 특징으로는 단일 언어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는 데일리 서포트 업무의 경우 업무의 성격에 따라 특정 통번역사 행위자와의 등록 관계가 더 강하거나 더 약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령 특정 통번역사는 한국어에서 외국어로 번역하는 소위 'AB 번역', 그리고 외국어 통화 대리나 긴급 속보 동시 통역 등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sup>5)</sup> 또한 통번역사로서의 기본적인 역량이 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데일리 서포트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등록돼 있는 통번역사 행위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OPP 지점에 위치한 데스크 행위자는 애초부터 이에 적합하게 업무 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혹 특정 통번역사에게 본인이 소화할 수 없는 데일리 서포트 업무가 배정될 경우 해당 통번역사는 동일 언어 네트워크에 있는 다른 통번역사에게 이를 의뢰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통번역사 행위자들은 동일 언어 내 네트워크의 인간 행위자들과 우호적 동맹 관계를 유지하거나 본인에게 등록된 업무를 강화해야 고용 안정을 꾀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3) 전체 통번역사 행위 네트워크

본 절에서는 언어를 망라한 통번역사 전체의 행위자 네트워크의 특성을 살펴본다. 보도국 통번역사 네트워크는 2016년을 기준으로 하여 과거 20년간 보도국 전체 네트워크에서 절절돼 하나의 개체가 된 안정적 네트워크, 즉 블랙박스 상태를 유지해 온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내부적으로도 이상적인 상호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전체 보도국 차원에서도 통번역사 네트워크를 손쉽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 해당 블랙박스를 해체할 동기가 미미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이 같은 관찰 결과를 도출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등록되어 있는 첫 번째 업무인 외신의 번역 보도 업무가 20년째 변화를 겪은 적이 없었던 것으로 면접 조사 결과 나타났다. 통번역사가 번역을 기반으로 보도하는 국제 뉴스 리포트는 오전 9시 30분 뉴스와 정오 뉴스의 월드뉴스 코너를 통해 시청자들에게 송출되며, 월드뉴스의 길이는 오전 9시 30분 뉴스와 정오뉴스 각각 5분 30초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루에 통번역사의 국제 뉴스 리포트 방영 시간은 11분 정도이며, 리포트 하나의 길이가 평균 1분 10초에서 1분 20초

5) 가령 일부 통번역사가 수행한 AB 번역 업무의 품질이 높지 않아 문서가 반려되어 오거나 외국어 통화 대리 등의 업무가 발생했을 때 연락이 닿지 않는 통번역사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이인 점을 고려할 때 하루에 총 8개의 리포트가 방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편성 정보가 대략 20년째 변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뉴스의 포맷 변화와 혁신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보도국 내에서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사실상 블랙박스화 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통번역사 네트워크 내에서도 지난 20년간 번역 기반 외신 보도 업무를 비교적 균형 있게 분배함으로써 네트워크 질서의 최적화를 도모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총 40건의 번역 기반 외신 보도가 이루어진다면 영어 9건, 일본어 9건, 중국어 9건, 프랑스어 9건, 독일어 4건으로 비교적 업무 분배가 고르게 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sup>6)</sup>. 또한 OPP 지점에 위치한 데스크 중에서도 이 같은 업무 분배를 교란시키고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일견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결절과 무관해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를 통해 특정 언어권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통번역사 행위자가 타 언어 네트워크를 교란시켜야 할 동기, 혹은 OPP 지점에 위치한 데스크와의 동맹을 비정상적으로 강화해야 할 동기 등이 비교적 효율적으로 차단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과거 20년간 통번역사 행위자의 네트워크 이탈이 거의 없었던 것도 해당 네트워크가 결절 상태였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통번역사 행위자 10명중 8명은 재직 기간이 거의 20년에 달했으며, 나머지 2명도 재직 기간이 약 10년에 달하는 것으로 면접 조사 결과 파악되었다. 이 같은 통번역사의 장기 근속년수와 근속년수에 비례해 증가하는 이들의 내부 권력으로 인해 통번역사 네트워크는 보도국에 최적화된 통번역 전문가 집단으로 블랙박스화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이처럼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보도국 내에서 결절된 원인이 무엇인지 크게 2가지 측면, 좀 더 구체적으로는 보도국 차원과 통번역사 차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먼저 보도국 차원에서의 원인을 논의한다. 현장관찰조사가 진행된 보도국이 소속된 방송사는 공기업이며 언론사다. 보도국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영향을 미치는 언론사로서의 주요 특징은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공기업으로서의 특징은 구조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로 요약할 수 있겠다. 이로 인해

6) 독일어는 통번역사가 1명인만큼 리포트 개수도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번역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예산,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번역사의 급여와 외신 계약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보도국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보도국에서는 통번역사가 보도국에 일정 수준이라도 기여를 한다고 판단되면 이에 할당되는 예산에 관해서 과도하게 분석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지난 20년간 물가인상률이나 통번역사의 근속 년수, 그리고 통번역사의 시장 가격 등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TV 보도국 통번역사의 급여가 2016년까지 단 한 번도 조정되지 않았다는 면접 결과가 이 같은 분석 사실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공기업의 특성상 한 부서를 책임지고 오랫동안 담당하는 관리자가 없는 상황도 통번역사 네트워크 블랙박스화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OPP의 자리는 잦은 인사 이동에 의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정도 거쳐 가는 데스크가 차지하는 만큼<sup>7)</sup>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문제가 발견되거나 일부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여도 데스크 차원에서 장기적 비전을 가지고 이를 수술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일례로 통번역사 급여 문제가 제기되었을 당시 중간에 인사 이동이 단행되면서 새로운 데스크에게 업무가 인계되어 흐지부지 끝나거나 통번역사 행위자간 업무에 따른 불화가 발생해도 OPP가 개입하기 보다는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내부 질서를 통해 스스로 해결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통번역사의 차원에서 보면 공기업의 특성인 고용 안정이 네트워크를 이탈하지 않는 주요 원인 중 하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현장관찰조사가 진행된 보도국 소속 통번역사들의 통번역대학원 졸업 시기인 90년도에 비해 현재 통번역사의 가격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하락한 만큼(유한내, 2010; 이지는 외, 2014) 이들이 공기업의 고용 안정을 포기할 동기 부여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도국에서는 통번역사의 시간 활용도 비교적 자유롭게 보장해 주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은 보도국 밖의 다양한 분야에서의 통번역 일도 병행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보도국 통번역사 대부분은 보도국 외부에서 국제회의 통역사, 프리랜서 번역사, 대학 시간강사 등의 일을 겸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sup>8)</sup>. 또한 통번역사 대부분은 통번역대학원 졸업 직후에 입사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보도국에 특화된 본인의 직무 수행 능력을 이직

7) 2007년 이후 한 데스크가 근무한 기간이 가장 길었던 경우도 1년 6개월에 불과했으며, 짧게는 1개월 만에 교체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면접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

8) 전체 10명의 통번역사 중 외부에서 국제회의 통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4명, 프리랜서 번역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9명, 대학 시간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3명인 것으로 조사되었다(복수 응답 가능).

을 통해 굳이 포기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면접 조사 결과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고용 안정을 위해 보도국 통번역사 네트워크에서 상호간 최적의 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외부 네트워크의 교란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온 것으로 보여진다.

## 2. TV 보도국 통번역 팀 조직 개편(2016년)

앞서 언급한 대로 전체 보도국에서 특수 집단으로 결절된 상황을 20년간 유지하던 통번역 팀이 2016년 처음으로 조직 개편의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는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 국제부 전체가 예산 감축의 대상이 됨에 따라 최근 가격 경쟁력이 다소 하락하고 있는(유한내, 2016) 통번역사들 역시 그 여파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본 장에서는 TV 보도국 내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2016년 조직 개편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ANT에서의 네트워크 번역 과정의 측면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 1) 문제제기 - 외신 계약 종료

통번역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이 시작된 2016년 당시 통번역사들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 모은 첫 번째 사안은 유상으로 체결된 외신 계약 종료였다. 당시 보도국과 계약된 외신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CNN, ABC, CCTV, NHK, F2, ZDF로 모두 6곳이었다. 그러나 이 중 CNN과 CCTV, 그리고 NHK와는 무료 뉴스 교환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데에 반해 ABC와 F2, 그리고 ZDF의 경우 각각 연간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사이의 계약금이 지불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보도국은 ABC와 F2, 그리고 ZDF와의 유상 외신 계약을 종료함으로써 예산 감축을 도모하고 해당 외신과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통번역사의 네트워크 내 업무 내용에 관한 문제를 수면 위로 떠올렸다. 특히 실제 회의 중에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독일 등의 선진국의 뉴스를 유상 구매해 보도하는 힘의 이데올로기에 의한 뉴스 제작 방식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사실에 관찰되면서 외신 계약 종료 건은 예산 감축 외의 명분도 갖추게 되었다. 단, 이미 무료 뉴스 교환 계약이 체결돼 있었으나 그 활용도가 낮았던 영국 공영 방송 BBC를 통번역사가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외신으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따라서 기존에 ABC<sup>9)</sup>와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던 한영 통번역사는 BBC와 새로운 동

9) 현장관찰조사를 실시한 보도국에서는 2016년 연간 7천만 원 상당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있던

맹 관계를 맺으며 네트워크 속 역할 등록에 성공했다. 반면 F2와 ZDF와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한불 통번역사와 한독 통번역사는 번역 기반 외신 보도 업무가 공백 상태에 놓일 수도 있게 되었다. 즉 기존에 유지되어 오던 최적의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내부 질서가 교란되면서 20여 년간 블랙박스화되어 있던 해당 네트워크가 새로운 네트워크 번역 과정에 통합되느냐, 혹은 외부 압력에 저항하며 기존의 결절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느냐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 2) 관심끌기 - 새로운 외신 계약

보도국은 일부 외신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전 세계 뉴스 발전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1964년 결성된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Asia Broadcasting Union, 이하 ABU)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뉴스를 보도국에 동원하였다. 즉 새로운 비인간 행위자인 ABU를 보도국 전체 네트워크에 편입시킴으로써 보도국 전체 네트워크 내의 인간 행위자들의 관심을 불러 모았다.

ABU의 특징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남태평양 등의 뉴스가 총 동원된 뉴스 소스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ABU에서는 뉴스를 배포할 때 쓰여진(written) 영어로 간단하게 해당 뉴스를 설명하는 자료를 함께 배포한다. 이 같은 특징으로 인해 ABU는 뉴스 작가를 비롯한 통번역사 모두가 동맹을 형성할 수 있는 비인간 행위자로 보도국 네트워크에 등장하였다. 특히 비인간 행위자인 ABU의 등장은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한정해서 볼 때, 기존의 동맹 외신을 잃은 한불 통번역사와 한독 통번역사의 관심을 특히 끌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은 보도국 통번역사에게 주어지는 두 가지 업무 중 공백 위기에 있었던 번역 기반 외신 보도 업무를 ABU와의 동맹 형성을 통해 대체하고자 했던 것으로 관찰되었다. 실제로 한영 통번역사 외에도 한불 통번역사와 한독 통번역사가 ABU의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제한 경우가 정기적으로 관찰되었고, 이들이 번역한 ABU의 뉴스가 최종 데스크를 통과하여 시청자들에 정기적으로 방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ABC 뉴스와의 계약을 종료했지만 2017년에는 ABC 뉴스와의 무료 뉴스 교환에 다시금 성공함으로써 ABC 소스를 다시 활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 3) 등록하기 - 통번역사 네트워크 업무 등록 재편

문제제기와 관심 끌기 과정에 거쳐 보도국 통번역사 네트워크는 최종적으로 인간 행위자의 경우 조직 개편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나 비인간 행위자는 CNN, BBC, CCTV, NHK, ABU로 바뀌었다. 이로 인해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던 역할 배정과 동맹 관계가 새롭게 재편되었다. 먼저 동맹 관계의 변화부터 살펴본다.

개편 이후 한영 통번역사는 CNN과 BBC, 한중 통번역사는 CCTV, 한일 통번역사는 NHK, 그리고 한불 통번역사와 한독 통번역사는 ABU와 새로운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개편 이전에는 외신과 통번역사는 하나의 단일 대상으로 비춰질 정도로 강력한 동맹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편 이후에는 뉴스 작가와 모든 언어권 통번역사가 접속할 수 있는 외신인 ABU의 등장으로 각 언어권 통번역사와 외신의 동맹 관계가 반드시 필연성을 띠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이는 TV 보도국 통번역사 업무 중 하나인 번역 기반 외신 보도 업무가 통번역사의 전공 언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던 과거의 관행에서 보도국의 국제 뉴스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경향으로 치환(transposition)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같은 역할 치환은 네트워크의 OPP인 데스크가 새로운 외신을 가져옴으로써 정책적으로 강제되었음과 동시에 일부 통번역사들이 ABU와 강력한 동맹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통번역사들이 고용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치환에 동참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 같은 변화는 또한 보도국 내 전문가 집단으로 결절되어 있던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보도국 전체 네트워크와 접속하는 지점이 열리기 시작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다만 보도국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던 업무 중 데일리 서포트는 개편 이후에도 의미 있는 수준의 변화를 겪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동맹 외신의 교란으로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보도국에서 결절 상태를 유지하지 못할 여지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데일리 서포트 업무만으로도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타 네트워크 번역 과정에 완전히 흡수되기는 어려웠을 것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앞으로 통번역사들이 보도국 내에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자신에게 등록돼 있는 데일리 서포트 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동원하기 - 뉴스 작가와 기자 동맹군 동원

앞서 논의한 바 있듯이 한불 통번역사와 한독 통번역사는 ABU와의 동맹을 형성하며 보도국 전체 네트워크 속에서 ABU와 또 다른 동맹을 형성하고 있던 뉴스 작가와의 접속 지점을 형성한다. 즉 이들은 번역 기반 외신 보도 업무에 뉴스 작가 동맹군을 동원함으로써 통번역사 네트워크 속 자신의 역할에 국제 뉴스 생산의 주요 축 형성이라는 업무를 추가로 등록한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ABU라는 접속 지점을 통해 뉴스 작가 네트워크와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함으로써 자신을 거쳐 가는 행위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보도국 내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밖에도 통번역사 전체 혹은 일부가 간헐적, 혹은 지속적으로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뉴스 스튜디오라는 물리적 공간을 비인간 행위자로 편입시킴으로써 기자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던 역할이었던 출연 업무를 통번역사 네트워크에도 등록시키는 데 성공하였다. 즉, 통번역사들은 스튜디오라는 비인간 행위자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기존에 스튜디오 행위자와 동맹을 맺고 있던 기자 네트워크를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동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보도국 전체 차원에서 보면 보도국의 뉴스 작성 주체<sup>10)</sup> 중 가장 많은 행위자를 가지고 있는 기자 네트워크, 즉 보도국의 OPP 네트워크와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동맹을 형성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OPP와의 동맹은 권력 확대와도 연결되는 만큼 기자 네트워크 동원은 통번역사의 장기적 고용 안정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인 TV 방송사 보도국에 소속된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업무 내용과 조직 내 역할, 그리고 이들이 통시적으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2016년 조직 개편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현장관찰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ANT 이론에 의거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장에서는 현장관찰조사 결과를 서론에서 제기한 연구 질문에 따라 정리한다.

10) 보도국의 주요 뉴스 작성 주체는 기자, 뉴스 작가, 그리고 통번역사이며, <기자>뉴스 작가>통번역사 순으로 인간 행위자의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인 TV 방송사 보도국 내 통번역 팀의 행위자와 해당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는 업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V 방송사 보도국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인간 행위자는 2016년 이전을 기준으로 한영, 한중, 한일, 한불, 한독 통번역사 10명과 데스크 1명이며, 이 중 데스크는 통번역사 관리와 외신 계약 업무 등을 총괄하는 OPP 지점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번역 팀 네트워크의 비인간 행위자는 해당 보도국과 계약을 맺고 있는 외신이며, 2016년 이전을 기준으로 외신 행위자의 종류는 CNN, ABC, CCTV, NHK, F2, ZDF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통번역사와 외신과의 동맹 관계는 매우 강력해 보도국의 입장에서는 두 행위자를 하나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번역사 네트워크에 등록돼 있는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번역 기반 외신 보도 업무와 데일리 서포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번역사 행위자들은 일주일에 정기적으로 총 40건씩 본인이 동맹을 맺고 있는 외신을 번역 기반으로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아울러 통번역사 행위자들은 국제 뉴스 보도에 필요한 외국어 녹취 발췌 및 번역, 기자들의 해외 취재 영상 번역, 기자들의 해외 취재에 필요한 제반 서류 번역, 기자들의 해외 취재 비자 면접 통역, 취재에 필요한 외국어 통화 대리, 긴급 속보 동시통역, 그리고 정상 회담 동시통역 등의 '데일리 서포트' 업무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조직 개편이 있기까지 통번역사 네트워크는 보도국에서 결절된 블랙박스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번역사 네트워크의 내부의 질서 최적화, 구조조정에 적극적이지 않은 공기업의 특성, 그리고 수익을 내는 조직이 아니라 공공기관의 특성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연구 질문인 TV 보도국 내 통번역 팀 네트워크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앞서 결절 상태를 유지하던 통번역사 네트워크가 2016년 조직 개편의 대상이 된다. 보도국에서는 통번역사들이 동맹 관계를 맺고 있던 외신의 계약을 일부 종료함으로써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한다. 그리고 뉴스 작가와 기자 등 보도국 내 뉴스 작성 주체가 모두 접근할 수 있는 새로운 외신에 통번역사가 접근 가능하도록 만듦으로써 새로운 외신에 대한 통번역사의 관심 끌기를 유도한다. 이를 통해 통번역사에게 등록된 업무가 언어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외신 번역 업무에서 전체 국제 뉴스 작성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업무로 역할이 조금씩 치환(transposition)되기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 통번역사는 작가와 기자 동맹군을 동원해 이들과 동등한 뉴스 기사 작성 주체로서의 입지를 다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 기존의 데일리 서포트 업무는

조직 개편 이후에도 유사하게 유지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앞서 논의한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이 시사하는 바이자 세 번째 연구 질문, 즉 통번역사가 네트워크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뉴스 작성 주체로의 역할 강화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통번역사들은 이제 특정 외신과의 배타적 동맹이 아닌 원천 외신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국제 뉴스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보도국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둘째, 통번역사들은 앞으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데일리 서포트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네트워크에서의 자신의 입지를 더욱 다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 제작의 다변화에 따라 외신 계약과 종료가 앞으로도 변화가 잦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sup>11)</sup> 조직 개편에도 보도국 내 수요가 비교적 분명한 데일리 서포트 업무를 강화하는 것이 통번역사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언론사를 비롯한 공공기관에 소속된 인하우스 통번역사 집단에 대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 드러난 공공기관 언론사처럼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근속 년수가 오래된 인하우스 통번역 팀의 업무가 전체 조직 내에서 블랙박스화 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업무의 성격에 적합한 인력 기용이 힘들어질 가능성을 시사하고, 통번역사의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인식 저하와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조직 차원에서는 조직 내 통번역 수요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 블랙박스를 해체 후 업무 등록을 재편할지 혹은 블랙박스의 결절을 더 강화할지에 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 이른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본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공공기관에서 통번역사들을 대상으로 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통번역사 대부분이 공공기관에 남기 위해 역할 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반드시 통번역사라는 직함을 가지지 않더라도 다양한 국제 업무에 특화된 인력을 확보할 수 있음을 뜻하고 통번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 협소한 의미의 통번역 업무 이외의 업무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 본 연구가 한 곳의 TV 보도국에 대한 현장관찰조사를 바탕으로 세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한 답을 도출하고자 한 점을 고려할 때, 조직별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변

11) 실제 2017년에는 미국 ABC와 독일 ZDF에서 상호 뉴스 교환 협약을 제시해 온 것으로 조사돼 한영 통번역사와 한독 통번역사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외신이 추가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를 통제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현장관찰조사를 중심으로 하되 일부 면접을 병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석이 실증적 근거보다 연구자의 경험에 의한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연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표본 기관을 늘리고 통번역사의 설문 조사 등을 연구 방법으로 추가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대표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 참고문헌

- 강경이(2013). 언론 매체 기관의 번역 게이트키퍼 현황 조사: 한국어 기사의 외국어 재가공 과정을 중심으로. *T&I Review*, 3: 39~58.
- 김나형·김숙진(2013). 행위자-연결망 이론을 통해서 본 태백시 물 공급의 지리학. *대한지리학회지*, 48(3): 366~386.
- 김동일(2010). 부르디외와 라투르의 대질과 수정: 사회과학 지식체계에서 장이론의 가능성과 한계. *사회과학연구*, 18(2): 40~89.
- 김병선(2012). 간첩사건의 행위자 네트워크: 북한과의 접촉 사건에 대한 스토리텔링의 패턴과 그 변화. *경제와 사회*, 94: 80~117.
- 김종희(2013). 국내 인하우스(in-house)통번역사 실태 조사연구. *日本語教育*, 65: 17~30.
- 김종희(2015). 인하우스(in-house)통번역사 직무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일어일문학*, 65: 111~127.
- 김진택(2012). 행위자 네트워크 이론(ANT)을 통한 문화콘텐츠의 이해와 적용 - 공간의 복원과 재생에 대한 ANT의 해석. *인문콘텐츠*, 24: 9~37.
- 김현정(2015). 인하우스통번역사의 업무내용 분석연구. *일어일문학*, 67: 27~43.
- 박지영(2016). 인하우스 통번역사의 고용 현황과 직무 분석. *번역학연구*, 17(5): 127~152.
- 송연석(2013). 제도적 번역으로서의 외신번역에 대한 비판적 연구 - 정부와 언론사간 권력관계와 이데올로기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박사논문*.
- 신지선·김은미(2017). 인공지능 번역 시스템의 출현에 대한 소고. *번역학연구*, 18(5): 91~110.
- 안형준(2009). 이소연은 우주인인가 관광객인가?: ANT의 관점으로 본 한국최초우주인 논쟁. *과학기술학연구*, 9(1): 89~127.
- 유한내(2016). 통번역사 교육과 취업의 방향 제시를 위한 방안: 채용공고를 통해서. *통번역학연구*, 20(3): 51~75.

- 이지연(2007). TV 방송 뉴스 번역의 특성: 격식성과 정중성을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8(1): 263~282.
- 이지연(2008). 소리와 이미지의 번역 - TV 뉴스 번역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9(2): 193~251.
- 이지은·유효미·전양주·정희정(2014). 통번역학 석사 교육과정 개정을 위한 졸업생 설문조사: 이화여대 통역번역대학원 사례연구. T&I review, 4: 51~71.
- 정나영(2013). TV 뉴스 번역에서의 삭제 양상 분석 - KBS 월드뉴스를 중심으로. 번역학연구, 14(1): 301~329.
- 정나영(2017). TV 뉴스 영한 번역 전략 연구: 영상 기호와 언어 기호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홍성욱(2010). 「인간·사물·동맹: 행위자네트워크 이론과 테크노사이언스」, 15-36. 서울: 이음.
- 최수연(2016). 영상번역의 사회학적 연구: 행위자-네트워크 이론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홍정민(2014). 국내 언론사 뉴스 번역사의 역할과 지위 연구 - 영어 뉴스 사례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논문.
- Abdallah, K. (2005). "Actor-network Theory As a Tool in Defining Translation Quality,". Paper presented at the Conference 'Translating and Interpreting as a Social Practice', University of Graz, Austria.
- Bielsa, E. (2007). "Translation in Global News Agencies," Target, 19(1): 135~155.
- Chen, Y. (2011). "Translator's Subjectivity and Its Constraints in News Trans-editing: A Perspective of Reception Aesthetics," Meta, 56(1): 119~144.
- Doorslaer, L. (2009). "How Language and (Non-)Translation Impact on Media Newsroom: the Case of Newspapers in Belgium," Perspectives: Studies in Translatology, 17(2): 83~92.
- Hursti, K. (2001). "An Insider's view on Transformation and Transfer in International News Communication: An English-Finnish Perspective," Retrieved Sep. 01, 2016,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 eng. Helsinki. fi/hes/Translation/insiders\\_view.htm](http://www.eng.helsinki.fi/hes/Translation/insiders_view.htm).
- Latour (1997). "On Actor-Network Theory: A Few Clarifications Plus More Than a Few Complications," Retrieved Jan. 28, 2018, from the World Wide Web:  
<http://www.cours.fse.ulaval.ca/edu-65804/latour-clarifications.pdf>.
- Orengo, A. (2009). "Localising News: Translation and the 'Global-national' Dichotomy,"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68~187.

- Tsai, C. (2005). "Inside the Television Newsroom: An Insider's View of International News Translation in Taiwan," *Language and Intercultural Communication*, 5(2): 145~153.